



클럽소식

‘너와 나의 푸른 가슴속에’

서울관훈로타리클럽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및 30년사 발간



서울관훈RC 전회장 김길원
서울관훈RC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RI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과 창립 스폰서클럽 한양RC 회장님의 축하를 받으며 서울관훈RC 회원과 가족이 함께 모여 창립 30주년을 자축

국제로타리3650지구 2지역의 서울관훈로타리클럽(회장 윤영석)은 1987.12.22. 한양로타리 클럽의 스폰서로 창립되었으며 지난 2017년 12월 22일(금) 창립 30주년 기념주회를 그랜드 앰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는 봉사단체에 걸 맞는 간소한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클럽의 사업비 지출 극대화 목표를 따라 낭비적인 소지가 많은 행사는 지양하고 클럽의 전회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여 친목을 다지고 클럽의 창립의의를 되새겨 향후 세대교체와 함께 효율적인 클럽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례적인 송년주회와 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내빈 초청의 범위도 연말에 초청인사의 바쁘신 일정을 고려하였으며 우리 클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최소한의 인사로 국한하여 국제로타리 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 최진욱 사무총장님과 클럽 창립의 스폰서 클럽인 한양로타리클럽 최경순 회장님 이렇게 3분 만을 초청하였습니다.

오후 6시 20분부터 시작된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는 송년행사로써 개회타종, 국민의례, 총무보고 등 일상적인 주회 순서대로 진행하였고 초청 연사인 동아일보 조성하 국장으로부터 “여인숙(여행은 인간의 숙명)”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에 속행되는 2부 행사는 초청한 내빈의 축하말씀을 듣고 만찬과 빙고게임을 진행하는 행사로서 먼저 3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행사위원장에게 30년사 편찬업무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로패 증정이 있었습니다. 윤영석 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여 직후 총무로부터 2부 행사 사회임무를 인계받은 행사위원장은 초청된 내빈을 소개하고 국제로타리 3650지구 이순동 총재님과 한양로타리클럽 최경순 회장님에게 축사를 부탁하여 축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클럽 회원인 홍두기 회원의 회고사가 있었고 잠시 작고하신 회원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묵념 후에는 회장과 내빈 그리고 창립회원이 단상으로 나아가 축하케익을 커팅 하였으며 케익커팅 후 창립회원인 최종학



윤영석 서울관훈RC 회장의 인사



이순동 RI 3650지구 총재 축하



내빈과 함께 강연을 경청



회원의 건배사와 건배제의에 따라 만찬과 여흥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찬 후에는 김한용 회원과 김동균 회원이 공동 사회자로서 개그맨 뽐치는 재치 있는 말솜씨로 빙고게임을 진행하였으며 회원들로부터 협찬 받은 선물이 빙고 결과에 따라 골고루 증정되었고 빙고 게임 후 운영석 회장의 폐회사와 폐회 타종으로 행사를 종료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참석하신 회원과 가족 및 내빈은 배부 받은 “서울관훈로타리클럽 30년사” 책자와 증정 받은 선물팩을 한 아름씩 안고 송년 인사와 함께 석별의 아쉬움을 표하면서 헤어졌습니다.

30년간의 클럽 발자취가 담긴 30년사

“너와 나의 푸른 가슴속에” 를 편찬하고

아름답게 제본하여 참석회원과 내빈에게 증정

우리 클럽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의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서울관훈로타리클럽 30년사를 편찬하였습니다. 약 300페이지 가량의 창립주회(1987.12.22, 제1차 주회)부터 창립 30주년이 되는 2017.9.26, 제1359차 주회 개최 시까지의 매 결산기마다 임원진, 회원명단과 함께 주회기록을 “창립 30년의 발자취” 로 기록하여 총 600여 페이지의 30년사가 “너와 나의 푸른 가슴속에” 라는 제목으로 편찬되었으며 30주년 행사 당일엔 책자를 배부하



(위) 지구총재, 클럽회장, 창립회원이 케익커팅, (아래) 빙고 당첨자와 함께

였습니다. “너와 나의 푸른 가슴속에” 는 2010년도에 제정되어 매 주회 시 마다 전회원이 함께 합창하는 관훈로타리가의 제목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30년사에는 클럽의 창립경과와 30년간의 발자취와 함께 클럽에 입회한 총 연인원 163명의 회원성명이 입회일 및 탈퇴일과 함께 기록되었고 그간 탈퇴하였거나 작고한 회원 99명을 제외하고 2017년 11월 현재 재적중인 회원 64명에 대해서는 프로필과 함께 본인과 가족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회원명부 및 추억의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울관훈로타리클럽 30년사
- 너와 나의 푸른 가슴 속에



또 봉사활동의 기록으로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인 “관
훈나무사업의 추진경위와 실적” 및 지원 대상 가족 현
황을 수록하였고 지원 대상 가족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이 지원 받은 소감과 각오를 기재한 “축하 및 감사서신”
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의 편찬을 위하여 편찬위
원장은 역대회장 모두를 감수위원, 심리위원, 편집위원,
발간위원으로 선임하여 자료수집과, 원고의 검토, 사실관
계 확인, 승인, 예산확보 등의 소임을 맡도록 하였으며 일
사불란한 업무협조에 힘입어 600페이지에 달하는 30년사
책자가 별 어려움 없이 발간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30년사 발간비용은 전액이 회원들의 자
발적인 광고협찬과 성금으로 조달되어 클럽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드높은 협조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30년간의 봉사활동을 되돌아 보고 향후 클럽의 발전과 봉사계획을 다지는 자리

클럽 30년간의 봉사활동을 회고해 보면 창립 이후 2005
년까지 약 17년간은 우리클럽이 여명기를 시작으로 안정
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금과 기금을 모아 기부 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나 2005년 3월 소년소녀가장 돕기
운동을 추진하는 노원구청과 학생가장돕기시민연합과 제
휴로 선별된 지원 대상 가정의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식
사하는 모임으로 시작하여 정기적인 만남과 지원금을 지
급하는 현장봉사의 방침으로 결정하였고 두산그룹 연강
재단과 봉사활동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인 꿈나무 사업을 우리 클럽의 주력사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족은 대부분 부모의 가출이나 행방불명으로
청소년들이 가장이거나 조부모 슬하에서 생활하는 가족

들로서 학자금과 생활 보조금 뿐만 아니라 부모의 보살핌
과 인성교육이 필요한 가족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연간 계속하여 학자금과 생활보
조금을 지급하고 연강재단에서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
하며 외식문화가 발달한 현대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가족 전원을 초대하여 식사 제공과 선물을 주
고 식사 시에는 우리클럽의 회원 들이 가족들 속에 섞여
앉아서 답소를 나누며 향후 희망찬 생활을 영위하도록 격
려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도 겸하는 현장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주력사업 봉사활동의 결과 2005년 이후 우리클럽
의 봉사활동비 총액은 12년간 9억8천만 원이고 연 평균
액은 8천 여 만원으로서 이전 17년간의 지출액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의 창립 30주년을 회고할 때에 이와 같은 클럽의 봉
사활동 경위와 결과 및 방침은 자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항이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봉사방침이 지속될 것이 기
대됩니다.

클럽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
진 가족으로서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 왔다는 것을 기념
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내빈과 함께 즐긴 이 자리는 우
리 클럽이 세대교체를 거듭하면서 향후 100년을 지나 영
원한 세월 속을 함께 살아가며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예장RC, 파주보육원 사진촬영 및 발레공연 초대 12월 20일에는 송년주회도 개최



서울예장RC(회장 황순신)은 12월 2일(토) 숙명로타렉트 클럽,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한용외 이사장)과 함께 파주보육원 촬영 봉사를 다녀왔다.

이날은 인클로버재단 한용외 이사장은 직접 60명 보육원 아이들의 사진(증명, 여권, 자유 포즈)과 요양원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었고 봉사자들은 편집, 프린트 후 액자에 끼워 증정했다.

사진 촬영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서울예장RC 회원들이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눴고, 장수사진을 찍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메이크업도 해드렸다. 멋진 사진을 위해 아이들 한명 한명을 위해 다양한 포즈를 잡아주기도 하였다.

또한 12월 30일(토) 박인자 전회장님의 초대로 파주보육

원 아이들이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한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을 감상했다.

환상적인 발레 공연 후엔 호두까기인형 선물과 함께 회원인 도정임 한국발레협회 회장의 초대로 맛있는 오리고기로 연말 기분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와는 별도로 12월 20일(수) 서울예장로타리클럽(회장 황순신) 송년회가 호텔 프리마 6층 노블레스B홀에서 개최하였다. 준비 되어진 다양한 이벤트와 푸짐한 선물로 클럽 회우님들의 즐거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송년회는 7시 시작되어 8시까지 식사, 10시까지 노래의 시간, 선물 교환, 경매 등의 순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아진 불우이웃 성금 110만원 전액은 라자로 마을 기부액으로 전달 될 예정이다.

서울상록RC 창립 24주년 기념 및 송년음악회 개최

서울상록로타리클럽(회장 박갑제) 제24주년 창립기념식 및 송년음악회가 2017년 12월 21일 (목) 저녁 6시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상록로타리클럽 주관 하에 후원 클럽인 서울뉴광진, 서울소통 로타리클럽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순동 총재님,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 총재님을 모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1부 창립기념식을 시작으로 이순동 총재의 축사에 이어 서울상록RC 박갑제 회장, 서울뉴광진 RC 염성철 전회장, 서울소통로타리클럽 이정선 전회장께서 창립기념 케익 커팅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유명한 성악가 세 분을 모시고 약 1시간 동안 송년음악회가 진행되어 모든 회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3부 만찬

에서는 장세호 차기총재, 박수부 차차기 총재께서 건배사를 하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순동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내빈들과 회원 여러분들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장충RC, 포천 나눔의 집에 성금 300만원과 물품 전달, 창립 27주년 기념 송년주회도 개최



서울장충로타리클럽(회장 박상훈)은 지난 12월 20일 클럽의 창립 27주년을 기념하는 주회와 2017년을 보내는 송년회가 클럽의 이현구 회원이 운영하는 신사동 호텔 라까사의 전망과 분위기 좋은 HOA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호 차기총재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회원가족과 회원의 지인들과 클럽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휴면회원들도 초청하여 오랜만에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한 바리톤 이응광 씨의 멋진 축하공연과 가수 서유석씨의 노래와 입담으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클럽의 회원인 김영택 화백께서 특별히 협찬해 주신 귀중한 펜화 원화를 경매하여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에 낙찰 되었습니다. 이날의 협찬금과 경매금등의 수입금중 일부는 회기내 사회봉사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장충RC은 1996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포천의 중증장애인 25명의 보호 시설인 나눔의 집에 지난 추석명절에 박상훈 회장이 방문하여 나눔의 집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데 이어 이번 연말에는 서정권 전회장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성금 3백만원과 행사물품, 식료품 등 구입해서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나눔의집 식구들 중 상대적으로 장애가 덜한 원우 두명이 일 년 간 익힌 마술을 발표하는 무대인 마술쇼 발표회를 함께 관람하고, 손목 팔찌를 만들어 서로 선물하는 자리를 같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장충로타리클럽의 정기적인 지원 외에도 변종현 수석부회장과 이재기 전회장등 회원들은 오랫동안 적지 않은 후원금을 매달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회원들의 회사직원과 가족들과 동반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온 회원들은 방문할 때마다 항상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고 온다고 말합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창진 목사와 홍익재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장충로타리클럽의 후원과 장충로타리클럽 회원들의 관심으로 나눔의 집이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면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무악RC,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들과 함께 한 송년주회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강석진)은 송년의 밤 행사를 대신하여 지난 12월 19일(화) 개봉동에 위치한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홍보위원회 주관으로 봉사주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봉사주회는 매년 송년의 달에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랑메아리 발표회로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러 회원이 참석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서울양정월약RC 송년주회

서울양정월약 로타리클럽(회장 민경윤)은 지난 12월 5일 ‘어양’에서 송년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양정월약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2018년 상반기 중 로타랙트 창립, 서해장봉도 장애인 시설에 정기적 의료봉사실시, 2018년 1월중 차차기회장 선임, 회원확충을 위한 문호개방 등을 토의하며 클럽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성RC 송년주회

포천 나눔의집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각각 성금 100만원 전달

한성로타리클럽(회장 손미선)은 지난 12월 2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7년 송년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주회에는 클럽에서 후원하고 있는 포천 나눔의 집 목사님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님, 마포고 인터랙트 진형필 선생님을 초대했고, 포천 나눔의 집과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각 성금 100만원씩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꽃님 소프라노와 전은진 첼리스트, 정주희 소프라노의 멋진 공연이 열렸고, 토니박 종합예술단의 재미난 마술쇼와 흥겨운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아가페서울RC 송년주회, 40명 참석

오찬 주회로 시간 변경 결의, 회원증강 의지 다져

아가페서울RC(회장 임오혁)은 지난 12월 20일 (수) 2017-18년도 전반기를 마치면서 송년주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던 김용운 초대회장을 비롯 역대 회장들과 회원, 내빈 등 40여명이 참석을 하여 다시 한 번 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자고 다짐하는 주회가 되었다. 송년 주회를 개최하기 전, 두 번의 역대

회장단 모임을 가졌던 것도 큰 의미가 있었으며, 아가페서울로타리클럽이 한층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시간이었다. 특히 주회시간을 조찬에서 오찬으로 변경하여 여성회원과 휴면회원의 참석을 더욱 독려하기로 결정하였다. 아가페서울RC은 지난 1996년 3월 25일 세계에서 유일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특정 종교인들의 모임이라는 이유로 가입 승인이 쉽게 나지 않았지만 결국 국제로타리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한양로타리클럽 송년주회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최경순)은 지난 12월 18일(월) 역삼동에 위치한 (주)에도킨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가는 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뜻 송년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특히 한양연세위성클럽 김동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하였으며, 연세로타랙트 김동휘 현 회장과 김애지 차기회장이 참석하여 연세로타랙트 활동지원금을 전하며 소중한 나눔으로 무한 행복의 훈훈함이 열기를 더하였습니다.

윤구홍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송년주회는 설야 최경순 회장의 인사말을 비롯하여, 금진호 이사의 축배제의, 연세로타랙트 활동지원금 전달, 김동휘 연세로타랙트회장의 감사 인사와 마지막으로 송년주회 이벤트로 행운의 선물과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송년선물을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춰 산타가 찾아와 아이에게 전해주는 느낌 같은 특별한 광경도 연출 하였습니다.

송년주회가 끝날 무렵에는 <석별의 정> 노래에 맞춰 준비한 반회기 동안의 회원들의 활동영상과 함께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한 주회로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2월 26일(화)에는 ‘한양연세위성클럽’은 신촌에 위치한 <달달데이>라는 곳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최경순 한양RC 회장이 참석하여 송년의 밤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한양연세위성클럽 회원들은 우정과 사랑을 다지며 서로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뜻있는 행사를 가지며즐겁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서울삼청RC 창립 23주년 기념 및 송년주회 개최, 삼청동 독거노인 50세대에 쌀 나눔 봉사도 펼쳐



서울삼청로타리클럽(회장 최인훈)은 지난 12월 6일 조선히텔 2층 오키드룸에서 창립23주년 및 2017년 송년주회를 개최했다.

초대회장이신 一松 이명박 초대회장(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국제로타리 이동건 전회장, 엄경섭 지구 질병치료 및 예방 위원회 위원장, 모클럽인 최경순 한양RC 회장, 최인훈 서울삼청로타리클럽 회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석하여 창립23주년을 자축하였으며 시각장애인학생들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삼청로타리클럽은 지난 12월 13일(수) 삼청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삼청동 근처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 50세대에 쌀 50포(1포-20kg)를 전달하는 쌀 나눔 봉사를 펼쳤다. 회원들이 3팀으로 나뉘 각 집들을 방문하여 인사도 드리고, 작은 정성이나마 쌀도 나눠드리면서 진정한 봉사의 즐거움을 체험했으며, 쌀 외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삼청동주민센터에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울삼청로타리클럽 송년주회 기념촬영